

동부권 단체장, 지역발전 간담회 개최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신규 단체장 국책사업 발굴 논의

전북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단체장들은 27일 남원시청에서 국책사업 발굴과 공동협력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지난해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에서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논의했다.

그동안 동부권 발전 사업을 통해 남원시는 광한부원 주변 관광타운(남원예촌 1~5지구 조성사업)을 조성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홍삼클러스터사업, 무주군은 천마클러스터와 반딧불 산림체험숙박, 장수군은 장수식품 클러스터사업, 임실군은 치즈클러스터사업, 순창군은 장류클러스터 사업을 각각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남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예촌 1지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구 한옥 숙박단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2017 한국관광의 밤에 선정되며 지역경제 및 구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동부권 시·군수 협의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360억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전북도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 6개 시·군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동부권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해 동부권 지역자원의 특화발전에 앞장서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에서 만든 발효커피,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판매

순창군이 본격적인 발효커피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출에 본격 나섰다.

군은 수백여종의 발효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산균과 고초균을 이용해 커피 발효에 최종 성공하면서 순창발효커피 사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휴게소 운영자인 (주)원일유통은 '리던(REDONE) 순창발효커피' 브랜드로 휴게소내에 매장을 설치하기로 지난 9월 20일, 협약을 체결해 최근 광주대구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대구방향)에 매장을 개장했다. 순창발효커피는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해 REDONE(리던) 직영유통매장과 중소형유통업체, 커피전문점 판매 등 오프라인과 롯데닷컴, 이엘롯데, 롯데홈쇼핑,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판매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휴게소내 커피매장운영은 원일유통



순창군이 발효커피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출에 본격 나섰다.

에서 담당하고, 커피판매에 필요한 설비와 원·부재료는 진흥원에서 납품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순창발효커피 브랜드 홍보와 대량 매출처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역경제 과금 효과 또한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천산휴게소 대구방향 커피매출은 4억원(년)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진흥원의 원·부재료 납품 매출도 1억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대구방향에 이어 추후 광주방향 휴게소에도 발효커피매장을 추진하고 있어 순창발효커피 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포크가수 박강수,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게릴라 콘서트

가수 박강수의 게릴라콘서트가 오는 29일 오후5시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순창사진동우회와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가 연말을 맞아 군민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박강수는 심어송라이터로, 편안한 목소리와 호소력 짙은 감성으로 한편의 시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아한 목소리에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를 부르는 박강수 가수의 순창공연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극장 공연을 통해 꾸준히 활동해 온 박강수 가수의 순창게릴라콘서트는 순창에서의 첫 공연이라 의미가 더 크다.

김중수 사진동우회 회장은 "깊어가는 겨울 밤 박강수 가수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면서



"누구나 오셔서 감상할 수 있으니 많이 나오셔서 노래를 함께 즐겨주시길"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국사봉 전망대에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연다

국사봉으로 새해 해맞이 오세요

임실군,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 개최

임실군은 운암면에 있는 국사봉 전망대에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국사봉 해맞이 축제는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옥정호 순환도로와 봉어섬 등이 어울려 수채화 같은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새해 일출을 보기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는 5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행사에서는 신년맞이 불꽃놀이와 소망 풍선날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그동안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2년 동안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새해는 국사봉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 시민 모두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내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협동조합·관광협회 협약 체결했다

남원시, 관광활성화 3개 기관 협력

남원시는 27일 2019년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와 한국관광협동조합,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한국관광협동조합 이정환 이사장(한국드림관광대표), 전라북도 관광협회 최수연 회장(동양해외관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남원시의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도 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

동 등에 관한 협력이며, 이번 3개 기관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발전을 위한 여행상품 홍보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 관광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전라도 대표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18.11.16.)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의 사화환(38°C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전에 알고 있는 질환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7~18세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준공식

임실군은 27일 서바이벌게임장 건립사업 준공식 및 시연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와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하여, 직원과 주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바이벌게임장 건립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 공장 뒤편에 3,035㎡ 부지에 조성됐다.

주요시설은 서바이벌게임장과 스크린사격장, 운영시설 등 도심 전투 체험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이 설치돼 있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개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가족단위 관광객 및 학생, 동호인들에게 스틸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